

일본, 메탄 하이드레이트 본격 채굴

JOGMEC, 아이치현 해면 1260m 지점 굴착 ... 2018년 상업화 돌입

일본이 자국 근해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를 채굴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아이치현 부근 바다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굴착 시험에 착수했다고 2월15일 발표했다.

해저 굴착에는 해양연구개발기구의 탐사선인 지큐(지구)를 이용해 드릴이 장착된 파이프를 해저에 박아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게 된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해면으로부터 1260m 지점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해저나 빙하 아래에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과 물이 높은 압력 때문에 얼어붙어 얼음 형태의 고체가 된 것으로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고 있다.

JOGMEC는 2012년 초 세계 최초로 시험 생산을 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채굴에 성공할 경우 2018년 상업화에 돌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2/16>